

코로나19 시대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장마인드셋과 교수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채우영[†]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2년 11월 28일 접수: 2022년 12월 16일 수정: 2022년 12월 22일 채택)

The Influence of Growth Mindset and Professor Support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Freshman in the Era of COVID-19

Woo-Young Chae[†]

Dep. Nursing, Songwon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28, 2022; Revised December 16, 2022; Accepted December 22, 2022)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대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간호대학 신입생 248명으로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4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생활적응은 성장마인드셋($r=.51, p<.000$), 교수지지($r=.54, p<.00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수지지($\beta=.38, p<.001$),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대상자($\beta=.31, p<.001$), 성장마인드셋($\beta=.26, p<.001$), 전공만족도에서 만족이라고 답한 대상자($\beta=.16, p=.015$), 여학생($\beta=.14, p=.0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학교생활적응을 44.0%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학교생활적응,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간호대학 신입생, 코로나19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professor support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freshman in the era of COVID-19, and to understand the effect on school life adjust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8 nursing college freshman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4 to October 31,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8.0 program.

[†]Corresponding author
(E-mail: mychae99@hanmail.net)

As a result of the study, school life adjust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growth mindset($r=.51, p<.000$) and professor support($r=.54, p<.000$). Factors affecting school lif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freshman were professor support($\beta=.38, p<.001$), subjects who answered very satisfied in major satisfaction($\beta=.31, p<.001$), growth mindset($\beta=.26, p<.001$), subjects who answered satisfied in major satisfaction($\beta=.16, p=.015$), and female students($\beta=.14, p=.005$), which explained 44.0% of vari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ly used t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freshman. In the future, a follow-up study that can expand the subjects and explain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freshman is suggested.

Keywords : School life adjustment, Growth mindset, Professor support, Nursing college freshman, COVID-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현행의 수업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와 학사와 관련된 행사들을 전면 취소하는 등 교육 영역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1].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지침과 교육부의 학사 운영 권고안에 따라 2020학년 1학기 대학교육은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2].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3]. 갑작스러운 수업 운영의 변화로 캠퍼스에서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학 생활 적응이라는 과업을 마주하게 되었다[4]. 2022년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어[5] 당분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래 간호사를 육성하는 간호대학에서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간호학을 배우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중요하다[6]. 간호교육 현장에서의 각종 실습도 제한적 대면 실습교육으로 전환되어, 입학 후 대상자 간호를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탐색해야 한다[7].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대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1]. 이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확장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8]. 대학생에게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으로서 학업을 수행하며 대학 문화와 생활을 영위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

함을 의미한다[9]. 또한 개인의 스트레스에 능숙히 대처하고, 대인관계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4]. 그러므로 코로나19 시대에 입학한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인드셋은 개인의 지적 능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지니는 신념이다[10]. 성장마인드셋은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 능력이 향상되는 등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고, 고정마인드셋은 지능의 고정적인 특성으로 노력과 연습을 하여도 능력은 불변한다는 신념을 의미한다[11].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실패하더라도 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12]. 반면, 고정마인드셋이 높은 학생은 실패나 실수를 내면화하여 낮은 성취수준과 포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마인드셋이 높은 대학생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지된 학업성취도가 높았다[14]. 현재 성장마인드셋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성장마인드셋이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14]과 성장마인드셋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5]만 이루어져, 간호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 정도를 확인하고 성장마인드셋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수지지는 교수자로부터 받는 공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이다[16]. 대학생들은 학업이나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 또한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위해 지도교수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대학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중요하다[17]. 국내연구에서 대학생에게 교수지지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교수와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적 적응을 잘한다[18,19]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 신입생은 간호학 지식 습득 외에도 교내외 실습 등으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보고되고 있으므로[20], 교수지지가 더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 신입생의 교수지지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펜데믹의 미종식으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는 아직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감염병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학교생활적응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대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및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G 광역시 소재 2개 대학교의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에 의해 유의수준은 .05, 효과의 크기는 .15, 검정력은 95%, 예측 변인은 9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166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응답률이 낮을 것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필요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대학 간호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대학의 절차에 따라 2022년 10월 4일에서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명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0부가 모두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24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성장마인드셋

성장마인드셋은 Dweck [21]이 개발한 도구를 Park [22]이 변안한 총 8문항의 마인드셋 측정 도구 중 성장마인드셋에 관련된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마인드셋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1이었다.

2.3.2. 교수지지

교수지지는 Park [23]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Moon [24]이 대학생에게 맞도록 요인 분석을 통해 타당화한 2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지지가 높은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Jung과 Woo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3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6이었다.

2.3.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Kim [26]의 학교생활적응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alpha=.856$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배포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 정보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비밀 보장 및 무기명 처리, 연구 참여 도중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 참여 철회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포함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WIN 2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학교생활적응은 백분율과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 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과 교수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이 204명(82.3%)으로 많았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234명(94.4%)으로 많았다. 학교 성적은 중으로 답한 대상자가 176명(71%)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로 답한 대상자가 154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 선택 동기는 취업전망으로 답한 대상자가 157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음이 176명(71%),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178명(71.8%)으로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44(17.7)
	Female	204(82.3)
Subjective health	Good	234(94.4)
	Poor	14(5.6)
School record	High	32(12.9)
	Middle	176(71.0)
	Low	40(16.1)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44(17.7)
	Satisfaction	154(62.1)
	Moderate	50(20.2)
	Unsatisfaction	0(0)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 Interest	64(25.8)
	Job	157(63.3)
	Another's advice	16(6.5)
	Score consideration	11(4.4)
Extracurricular activities	Yes	72(29.0)
	No	176(71.0)
Religion	Yes	70(28.2)
	No	178(71.8)

Table 2. Mean Score of Variables

(N=248)

Variables	M±SD	Min	Max
Growth mindset	4.22±.66	2.25	5.00
Professor support	3.95±.64	2.50	5.00
School life adjustment	3.66±.45	2.80	5.00

Table 3. School Life Adjustm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3.50±.30	-2.60	.010*	
	Female	3.69±.47			
Subjective health	Good	3.66±.46	-.17	.867	
	Bad	3.68±.28			
School record	High ^a	3.87±.55	4.59	.011*	a>b,c
	Middle ^b	3.64±.45			
	Low ^c	3.56±.34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a	3.93±.44	24.52	p<.001***	a>b>c
	Satisfaction ^b	3.69±.41			
	Moderate ^c	3.34±.40			
	Unsatisfaction	0.00±.00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 Interest	3.79±.51	3.23	.023*	
	Job	3.60±.44			
	Another's advice	3.66±.33			
	Score Consideration	3.80±.25			
Extracurricular activities	Yes	3.73±.49	.68	.104	
	No	3.63±.43			
Religion	Yes	3.62±.46	1.56	.213	
	No	3.67±.45			

*p<.05, **p<.01, ***p<.001

3.2.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학교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은 5점 만점에 평균 4.22점, 교수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95점, 학교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이었다 (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F=-2.60, p=.010), 학교 성적(F=4.59, p=.011), 전공만족도(F=24.52, p<.001), 전공 선택 동기 (F=3.23, p=.02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 성적

은 높은 대상자가 중간과 낮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대상자가 만족보다 만족은 보통 대상자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공 선택 동기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정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학교생활적응은 성장마인드셋(r=.51, p<.000), 교수지지 (r=.54, p<.000)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Table 4. Correlation of Growth Mindset, Professor Support and School Life Adjustment (N=248)

Variables	Growth mindset	Professor support	School life adjustment
	r(p)		
Growth mindset	1		
Professor support	.40(p<.001*)	1	
School life adjustment	.51(p<.001*)	.54(p<.001*)	1

* p<.001

으며, 교수지지는 성장마인드셋($r=.40$, $p<.000$)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갖는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여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성장마인드셋과 교수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일반적 사항 중 성별, 학교성적, 전공만족도, 전공 선택 동기를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값이 .458~.900을 보여 .10이상의 기준이 충족되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가장 큰 값이 2.184로 나타나 10을 넘는 변수가 없어 독립변수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검증은 Durbin Watson 지수가 1.719로 확인되어 2에 가까운 수용 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어 독립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수지지였으며($\beta=.38$, $p<.001$), 전공만족도에서 매우만족은 보통($\beta=.31$, $p<.001$)과 만족($\beta=.16$, $p=.015$)보다 학교생활적응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그다음으로 성장마인드셋($\beta=.26$, $p<.001$)과 성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beta=.14$, $p=.005$)이 학교생활적응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8.73$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440으로 연구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을 44.0%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3.6.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로 측정된 Song [29]의 연구에서 3.54점인 것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Song [29]의 연구는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5개 대학교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신입생이 대상이므로 인구변수학적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생활적응은 대학 생활 동안 사회적 적응과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예견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4, 29], 학교생활적응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과나 학년에 따른 지속적인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중재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성장마인드셋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장마인드셋 점수는 5점 만점에 4.22점이다. 이는 Kim [15]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4.08점으로 측정된 것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Kim [15]은 간호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직접적인 비교에 제한이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의 점수가 최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 [27]의 연구에서 3.34점, Kim과 Choi [28]의 연구에서 3.26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성장마인드셋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Influence Variables on School Life Adjustment

(N=24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98	.23		8.50	$p<.001$ ***
Growth mindset	.18	.04	.26	4.44	$p<.001$ ***
Professor support	.27	.04	.38	7.04	$p<.001$ ***
Gender 1 ⁺	.17	.06	.14	2.81	.005**
School record 1 ⁺	-.02	.07	-.02	-.27	.784
School record 2 ⁺	-.03	.09	-.02	-.34	.736
Major satisfaction 1 ⁺	-.15	.06	-.16	-2.46	.015*
Major satisfaction 2 ⁺	-.34	.08	-.31	-4.54	$p<.001$ ***
Motivation of entrance 1 ⁺	-.02	.05	-.03	-.44	.658
Motivation of entrance 2 ⁺	-.11	.10	-.06	-1.14	.256
Motivation of entrance 3 ⁺	-.08	.11	-.04	-.75	.457

R²=.684, Adjusted R²=.440F=18.73, $p<.001$, Durbin-Watson= 1.719* $p<.05$, ** $p<.01$, *** $p<.001$ ⁺Dummy Variables; Gender(ref.=Male), School record(ref.=High)

Major satisfaction(ref.=Very satisfaction)

Motivation of entrance(ref.=Aptitude, Interest)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교수지지로 5점 만점에 평균 3.95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Jung과 Woo [25]의 연구에서 3.45점을 나타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Jung과 Woo [25]의 연구는 전체 학년 학생이 대상으로, 1학년 학생이 19% 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연(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 학과 특성이나 학년별 교수지지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간호대학 신입생의 교수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하여 교수지지를 높일 수 있는 지지 프로그램을 학과와 학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학과별 신입생 교수지지 프로그램을 교과목으로 운영하거나,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의 활성화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의 전공만족도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를 일반적 특성에서 명목적으로 매우만족에서 불만족까지 네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러한 척도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Seo와 Park [30], Choi [31]의 선행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외적인 요인보다 대학 신입생이 전공에 대해 느끼는 내적 심리적인 상태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상자가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더욱 세분화하여 추가적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의 성별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eo와 Park [29]의 안경광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Choi [30]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이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변수학적 차이와 연구 시점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적 차이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반복 측정하고 그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별을 고려한 교수지지, 성장마인드셋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이 교수와 면담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기적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간호대학 신입생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간호 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학교생활적응은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귀분석 결과, 교수지지, 전공만족도, 성장마인드셋, 성별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별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장마인드셋과 교수지지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 개 학교의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Y. J. Kim, "The college life adaptation experiences of first-year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6, pp. 121-134, (2022).
DOI : 10.22251/jlcci.2022.22.6.121
2. Ministry of Educati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pecial online classes for the first time (Corona 19)[Interne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c2022[cited 2020 Mar 31],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016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5&s=moe&m=020402&opType=N>(Accessed Nov, 23, 2022).
3. J. Y. Park, "A study on online education in universities amid COVID-19",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60, No 7, pp. 32-36, (2020).
4. K. A. Lee, H. W. Seon, "A study on the colleg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post corona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5, pp. 239-254, (2021).
DOI: 10.15207/JKCS.2021.12.5.239
5. J. B. Jeon, Corona 19 resurgence in earnest..Get vaccinated[Internet], Seoul: ChosunMedia, c2022[cited 2022 Nov 9], Available From: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1/09/2022110901667.html. (accessed Nov, 23, 2022).
6. S. Heo, I. J. Jeong, "Experiences of nursing freshma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uring the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12, No. 1, pp. 71-83, (2022).
DOI: 10.33502/JKSMH.12.1.071
7. G. C. Lee, J. H. Ahn,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y*, Vol. 21, No. 12, pp. 142-152, (2020).
DOI: 10.5762/KAIS.2020.21.12.142
8. H. Seo, S. H. Song,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new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to their campus lif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5, No. 1, pp. 361-391, (2010).
9. M. S. Lee, H. S. Choi, E. M. Ye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potential personality traits based on 5 factors of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educ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 20, No. 3, pp. 71-81, (2019).
DOI: 10.5762/KAIS.2019.20.3.71
 10. Dweck, C. S, Leggett, E. L,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Vol. 95, No. 2, pp. 256-273, (1998).
DOI: DOI:10.1037/0033-295X.95.2.256
 11. Dweck, C. S,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sychology Press, (1999).
DOI: 10.4324/9781315783048
 12. Laurian-Fitzgerald, S. “The effect of teaching cooperative learning skills on developing young students’ growth mindset”, *Educacia Plus*, Vol. 14, No. 3, pp. 68-83, (2016).
 13. L. S. Blackwell, K. H. Trzesniewski, C. S. Dweck,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Vol. 78, No. 1, pp. 246-263, (2007).
DOI: 10.1111/j.1467-8624.2007.00995.x
 14. J. L. Ryu, Y. B. Gwak, S. H. Kim, “Effect of nursing students’ growth mindset on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20, pp. 469-477, (2022).
DOI: 10.22251/jlcci.2022.22.20.469
 15. K. H. Kim, “The effects of growth mindset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il and Fat Chemistry*, Vol 39, No. 3, pp. 454-461, (2022).
DOI: 10.12925/jkocs.2022.39.3.454
 16. Cornelius-White, J, “Learner-centere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re effective: A meta-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7, No. 1, pp. 113-143 (2007).
DOI: 10.3102/003465430298563
 17. J. H. Kim, M. J. Chu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of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service”, *Journal of Commodity Science & Technology*, Vol. 38. No. 5, pp. 45-53, (2020).
DOI: 10.36345/kacst.2020.38.5.006
 18. M. H. Cho, “The effects of professors’ support on major commi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awaren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30, No. 6, pp. 935-948, (2021).
DOI: 10.5934/kjhe.2021.30.6.935
 19. S. D. Ki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member inter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nd degree of class participation for physical college freshmen”, *The Korea Journal of Sport*, Vol. 14, No. 3, pp. 471-481, (2016).
 20.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10.5977/jkasne.2010.16.1.014
 21. C. S. Dweck,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pp. 288, Random House, (2006).
 22. J. S. Park,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feedback 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Unpublishe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23. J. W. Park, "Work study for social support scale development", *Unpublishe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24. S. J. Mo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and persistence of vocational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2015).
25. H. I. Jung, S. M. Woo,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ag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23, No. 1, pp. 481-507, (2022).
DOI : 10.15818/ihss.2022.23.1.481
26. A. Y. Kim,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Vol. 15, No. 1, pp. 157-184, (2002).
27. J. Y. Park, C. S. Lee, "The effect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experience on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hope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 11, No. 1, pp. 1-19, (2022).
DOI: 10.20497/jwce.2022.11.1.1
28. H. M. Kim, A. R.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Vol. 25, No. 1, pp. 129-144, (2022).
DOI: 10.55586/kewms.2022.25.1.129
29. E. P. Song,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chool adjustment by parental conditional negative regard",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2019).
30. E. S. Seo, S. H. Park,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students majoring in optometry and optic sci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 21, No. 2, pp. 153-160, (2019).
DOI: 10.17337/JMBI.2019.21.2.153
31.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8, No. 6, pp. 68-77, (2017).
DOI: 10.33502/JKSMH.12.1.071